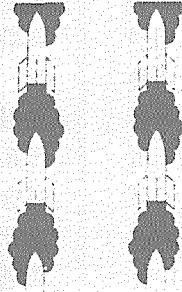


電子工業日誌



〈'94. 11. 1~11. 30〉

- 11. 3 : 상공자원부, 국내 전자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모두 400억원(정부 230억원, 민간 170억원)을 들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고.
- 11. 8 : 체신부, 전기통신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을 위해 No 7 신호방식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등에 대한 국가표준 39건을 새로 제정하고 3건을 개정 '95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 11. 9 : 특허청, 기존 특허기술 정보보급 체계가 체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특허기술 정보센터를 조속히 설립키로 했다고.
- 11. 10 : 제무부, '95년 12월말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첨단기술 산업 업종을 현행 151개에서 스테인레스, 특수합금계 극박제조업 등 2개 업종을 추가해 153개로 확대키로 했다고.
- 11. 14 : 상공자원부, 531억 1,000만 원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차로 각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키로 했다고.
- 11. 14 : ETRI, 2.3V의 낮은 전압에서 68%의 효율을 갖는 전력급속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ESFET)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 11. 15 : 상공자원부, 세계 반도체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MPU)와 주문형 반도체(ASIC)등 비메모리 반도체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기술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반도체 설계 교육 능력을 갖춘 대학을 중심으로 '95년부터 매년 50억원(정부예산 20억원)씩 지원해 오는 '98년까지 1000여명 이상의 반도체 설계 인력을 배출키로 했다고.

- 11. 17 : 과기처, 산하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지난 '93년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벌인 1차 산업의 경우 126개 과제에 137개 중소기업이 참여 이중 45개 중소기업이 상품화 또는 기업화에 성공했다고.
- 11. 18 : WSTS, 올해 세계 D램 시장은 224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71.2%가 늘어나 사상 최대의 호황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 11. 19 : 상공자원부, 그동안 민간수요에 따라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해 오던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 '95년부터는 정부가 6개부문 171개 기술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95년중 이를 기술의 개발을 위해 공업기반기술자금 1888억원과 공업발전기금 1,7543억원 등 모두 3,6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 11. 19 : 상공자원부, 오는 '98년까지 4년간 총 740억원을 투입, 민관 공동으로 차세대 디지털 VTR와 캠코더를 개발키로 했다고, 이를 위해 한국영상기기 연구조합을 중심으로 금성사, 대우전자, 삼성전

자 등 국내 22개 관련업체와 서울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하는 개발추진 체계를 확정했다고.

- 11. 19 : 상공자원부, 제1차 산·학·연 기술교류회를 갖고 정부의 향후 산업기술개발 정책방향과 '95년부터 우선 지원할 6가지 기술개발 영역 및 171개 개발대상 기술분야를 설정했다고.
- 11. 22 : 정부, 오는 2007년까지 13년간에 걸쳐 초고속정보화 구축을 위한 SW 기술을 개발키위해 총 5,000억원의 연구비와 전문인력 8000여명을 투입시켜 「공동핵심 SW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 11. 23 : 체신부, 각종 전기·전자·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12월부터 산하연구소 이천분소의 전자파장해(EMI) 시험 시설을 중소기업인들에게 개방키로 했다고.
- 11. 26 : 상공자원부, 전자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위원회를 '95년초에 구성하고 각종 규제를 포함한 제도개선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라고.
- 11. 28 : 상공자원부,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지역 콘소시엄 사업을 지방 공업기술원 중심으로 광역화된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는 것도 목표 개선키로 했다고.
- 11. 30 : 과기처, 최근 정책기조가 세계화로 전환됨에 따라 2,000년대에 미국,일본에 이은 제2의 정보산업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아래 정보화 핵심요소인 소프트웨어 분야를 세계화 차원에서 적극 육성키로 했다고.